

주간 규제 정보

Vol. 423

2022. 11. 07 ~ 2022. 11. 13



목차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교육, 공공,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분야 메타버스 서비스 국제표준화 첫발 3
2. 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제·개정 및 폐지 고시 4
3. 인공지능의 경쟁력은 신뢰성, 표준으로 해결한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4. 식약처,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적 규제조화 선도에 박차 7
5. 식품안전정보·전자민원, 24시간 안내해 드려요! 10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6. 대만,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의 적용을 받는 고정배선용 콘센트 외 7개 제품에 대한 법적 검사 요구사항 개정 발표 14
7.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에너지 라벨링 규칙 개정 14
8. 싱가포르, 로테르담 및 스톡홀름 협약에 따른 특정 화학 물질의 제조, 수출입 제재 통보 15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9. 브라질 면역물품 시장 17
10. 파키스탄 스테인리스 강판 산업 동향 23
11. 우즈베키스탄, 일부 상품 디지털 라벨링 의무화 시행 27
12. 라오스 주방후드 시장 동향 3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교육, 공공,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분야 메타버스 서비스 국제표준화 첫발

- 국표원, 「민관 공동 메타버스서비스표준화 포럼」발족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022년 11월 4일 교육, 공공,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분야 메타버스 전문가와 함께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메타버스서비스표준화 포럼」을 출범하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포럼은 산학연 전문가의 표준화 활동 환경을 마련하고, 메타버스 서비스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메타버스서비스표준화 포럼 발족 및 세미나 개최 >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 주관: 메타버스 서비스 표준화 포럼 사무국(한국표준협회)
- 일시: 22.11.04(금) 10:00~12:00
- 장소: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알레그로룸(유튜브 생중계 병행)
- 참석자: 이명원 포럼회장, KT/유콘크리에이티브 등 메타버스 서비스 주요기업 및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

□ 전 세계적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 서비스가 창출되고 관심도 높지만, 국제 표준화는 이제 출발점에 있다.

○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를 미래 유망 산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지원을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포럼을 설립하여 교육, 공공,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분야 국제표준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포럼 발족과 더불어 이날 행사에서 메타버스 서비스의 국내외 사례 발표, 표준화 연계 방안 등 향후 표준 개발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도 개최하였으며, 산학연 참여자들은 실제 시장에서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 분야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유콘크리에이티브 강종진 대표는 글로벌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해 국내 메타버스 서비스와의 차이를 소개하며, 글로벌 생태계를 따라가기 위한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포디비전 심현보 대표는 의료분야 3D기반 메타버스 활용 유형과 헬스케어 분야 메타버스 서비스를 위한 실감형 핵심 기술을 소개하고 의료용 메타버스 서비스의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다.

○ Microsoft코리아의 함상범 전무는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타버스 유즈케이스와 MS사의 메타버스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하고, MSF*의 구성 및 설립목적과 메타버스 기술표준 트렌드 등을 소개하였다.

* Metaverse Standards Forum(메타버스표준포럼): 메타버스 기술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MS, Meta, 소니, 엔비디아 등 30여 개 글로벌 기업 참여)

□ 오광해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 “향후 확대될 메타버스 서비스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우리기술과 서비스의 국제표준화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 “유망신성장 분야인 메타버스 서비스 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표준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R&D 표준화 연계 전략을 구체화하고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2. 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제·개정 및 폐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051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개정 및 폐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제·개정 및 폐지 고시

1. 제·개정 및 폐지이유

-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해 안전기준의 최신 국제표준(IEC) 부합화
- 이용자 편의성 등의 시장수요를 반영한 융복합 신제품(이동식 충전기 등)에 대해 사업화 지원(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연계)을 위한 개정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 (개정) KC 61851-1: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제1부: 일반 요구사항국제표준 부합화 및 융복합 신제품 사업화 지원
- (제정) KC 62752: 전기자동차 모드 2 충전을 위한 케이블 일체형 제어 및 보호 장치국제표준 부합화
- (폐지) KC 61851-22: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22부: 교류 충전장치국제표준 부합화

나. 주요 개정 내용

-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등
- (KC 61851-1) 이동형 충전기* 등 융복합 신제품 출시 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내진동 및 내충격성 등) 및 과부하·단락 보호 시험항목 추가 등으로 인한 안전기준 강화
- * 배터리를 탑재한 카트 및 트럭 등을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제품
- (KC 62752) 기존 안전기준(KC 61851-1 및 KC 61851-22)에 있던 휴대용 충전기*의 요구사항 및 노화에 대한 내성 시험 등이 추가된 별도 안전기준 제정
- * 휴대용 제품으로 케이블 일체형 제어 및 보호장치로 구성된 충전기
- (KC 61851-22) 기존 KC 61851-22의 내용이 모두 KC 61851-1(개정안) 및 KC 62752(제정안)으로 이동되어 폐지 필요
- * 다만, 기존 안전기준 병행적용 기간 만료 후 폐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 안전기준과의 병행적용 기간은 각 안전기준의 부칙에 따른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3. 인공지능의 경쟁력은 신뢰성, 표준으로 해결한다

- 국표원, 「2022년 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총회 개최 -

- 인공지능(AI)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최신 기술표준 동향을 논의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1월 10일 신라스테이 서초에서 삼성전자, LG, CJ 등 인공지능 주요기업,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총회를 개최하였다.

< 2022 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 총회 >

- (일시/장소) '22. 11.10.(목) 14:00~17:00 / 신라스테이 서초
- (참석자) 국가기술표준원장, 삼성전자·LG·CJ 등 기업,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
- (주요내용)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기업의 노력 발표 등
- * 유튜브 중계 : '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 으로 검색하여 시청
- 인공지능 국제표준화*는 2017년부터 시작되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국내 기업이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 * (완료) AI 신뢰성의 개요(ISO/IEC TR24028)
(진행) AI 시스템의 투명성 분류체계(ISO/IEC AWI12792), 설명가능 방법(ISO/IEC AWI TS6254) 등
-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이 산업에서 빠르게 적용되면서 부각된 신뢰성 문제를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의 기초연설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는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설명가능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의 국내외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제조, 헬스케어, 금융 등 산업 적용 방안에 설명하였다.
- LG AI연구원 김유철 부문장은 연구개발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사례를 소개하고,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를 기술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내용을 설명하였다.
- 조영임 가천대 교수는 인공지능 관련 국제표준화(JTC1 SC42) 진행 상황을 소개하고, 민관이 함께 표준화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CJ AI연구소 우지환 소장은 최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초거대 AI모델*을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AI 개발 시 필요한 윤리에 대한 표준과 AI 결과 검증을 위한 표준화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 * 대용량 연산이 가능한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을 적용한 것

- 제이리 특허법률사무소 장재호 변리사는 우리나라 기업이 AI관련 표준특허에 대응하는 방법과 AI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 전략을 제안하였다.
-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디지털 신산업 확산으로 인공지능의 적용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준화에 필요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4. 식약처,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적 규제조화 선도에 박차

- MDRF AI 의료기기 실무그룹 회의 개최...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 중장기 계획 마련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제 의료기기 규제당국자 포럼(IMDRF)’¹⁾내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실무그룹(working group)²⁾의 정례 회의³⁾를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개최했습니다.
- 회의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실무그룹 중장기 계획 검토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제안서 검토 ▲IMDRF 소프트웨어 의료기기⁴⁾ 실무그룹과 상호협력방안 논의 등입니다.

✓ 용어 설명

1)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y Forum, IMDRF)

의료기기 사전·사후 전주기에 대한 국제 규제 조화·단일화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미국 유럽 등 11개국 규제 당국자 간 협의체. 우리나라는 '21년 의장국으로 활동

2)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실무그룹(Artificial Intelligence Working Group)

우리나라, 미국, 유럽, 중국 등 13개국과 WHO 등 3개 단체로 구성(총 44명)

3) 정례 회의

실무그룹의 정기적 대면 회의. 인공지능(AI) 실무그룹은 팬데믹 안정화까지 화상회의로 운영

4)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

소프트웨어만으로 이루어진 의료기기, 국내 허가되는 대부분의 인공지능(AI) 의료기기가 SaMD에 해당

- 식약처는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실무그룹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해 약 4개월('22.6월~9월) 동안 회원국 의견(33건)을 수렴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중장기 계획(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실무그룹 중장기 계획(안) : ①('22년)핵심 용어 정의·설명, ②('23년)변경 관리를 포함한 규제 설계, ③('25년)제조 품질관리, ④('26년)시판 전 검토 필요 사항, ⑤('27년)시판 후 실사용 모니터링
- 참고로 식약처는 2021년 IMDRF 의장국으로서 국제 의료기기 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IMDRF 국제 가이드라인 제·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또한 식약처는 2022년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실무그룹을 이끌며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 * (국문명) 기계학습 가능 의료기기: 주요 용어 및 정의
(영문명) Machine Learning-enabled Medical Devices: Key Terms and Definitions
 - 그 결과 해당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분야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IMDRF에서 공식 승인('22.5월)됐습니다.
- 식약처는 IMDRF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실무그룹의 중장기 계획이 향후 국내를 포함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규제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국제 조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 개발을 선도하겠습니다.

붙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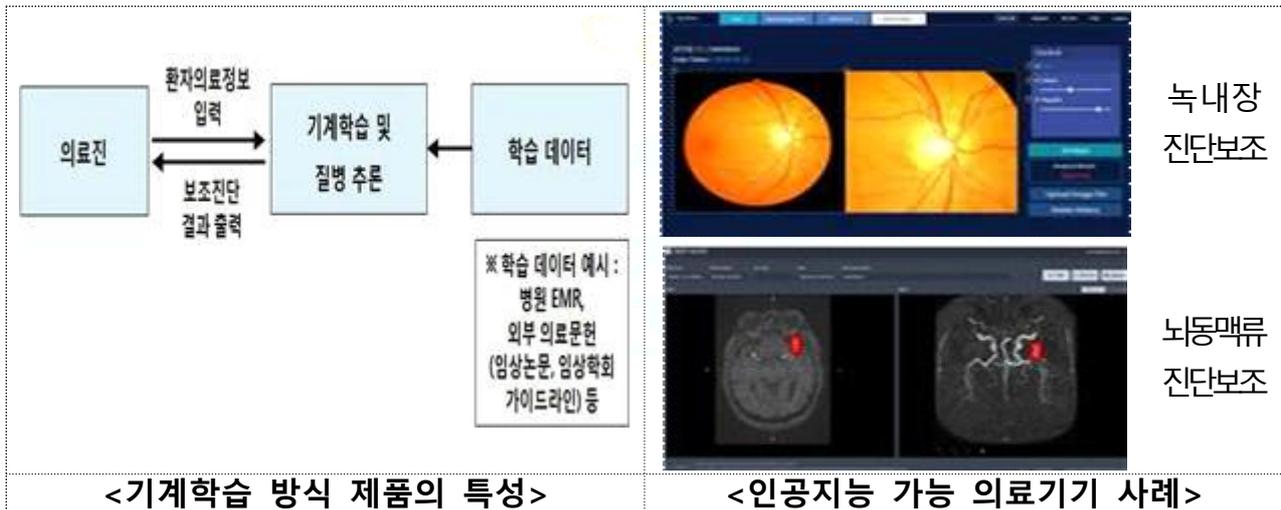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정의 및 품목허가 현황

□ 정 의

○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 또는 관리하거나 예측하여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

* 진료기록 또는 의료기기로부터 측정된 생체 측정정보, 의료영상, 유전정보 등 질병을 진단 또는 관리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의료정보

** 인지, 학습 등 인간의 지적 능력(지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컴퓨터를 이용해 기계학습 등으로 구현하는 기술



□ 국내 허가(인증·신고 포함) 현황

○ 총 139건(제조 124, 수입 15) 허가(인증·신고 포함)

(단위: 건수, '22.9월 기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9월	합계
제조	허가	3	6	14	13	8	44
	인증	1	4	31	20	20	76
	신고	-	-	-	1	3	4
수입	허가	-	-	2	1	-	3
	인증	-	-	3	2	7	12
	신고	-	-	-	-	-	-
합계		4	10	50	37	38	139

붙임 2

국내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현황

연번	제품화 단계	가이드라인 명칭	발행년월
1	허가	인공지능(AI)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7.11월
2		전립선암 영상검출·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안전성·성능 및 임상시험계획서 평가 가이드라인	2020.12월
3	임상 /허가	대장암 영상검출·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안전성·성능 및 임상시험계획서 평가 가이드라인	2020.12월
4		뇌 영상검출·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안전성·성능 및 임상시험계획서 평가 가이드라인	2020.12월
5		관상동맥협착 대상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2019.10월
6		유방암 대상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2019.10월
7	임상	폐암, 폐결절 대상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2019.10월
8		허혈성 뇌졸중 대상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2019.10월
9		인공지능(AI)기반 의료기기의 임상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2017.12월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5. 식품안전정보·전자민원, 24시간 안내해 드려요!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챗봇 서비스 '푸드' 정식 운영 개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안전 정보와 영업등록 신청·품목제조보고 등 전자민원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챗봇* 서비스 '푸드'를 11월 9일부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정식 운영합니다.

* 챗봇(Chatbot) :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채팅창을 통해 문자로 사람과 대화하듯 사용자의 질의에 대해 즉시 답변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시스템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지식부터 위해예방 전문정보 까지 30개 관계행정기관이 보유한 식품안전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로 2015년 6월부터 운영('21년 기준 연간 2천7백만명 방문)

○ '푸드'는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은 식품(Food)과 정보(Information)의 합성어로 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품목제조보고 방법 등 소비자와 식품 관련 영업자가 궁금한 사항을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질의하면 바로 답변하는 시스템이며 365일 24시간 사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참고로 푸디는 2021년 8월부터 '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을 시범운영한 결과를 반영해 질문 자동완성기능 등을 보강했고, 그간 축적된 질의·응답 사례, 민원 신청·처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챗봇 운영의 기반인 예상 질의·답변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예상질의 데이터 : (기존) 8,370개 → (현재) 총 38,582개(메뉴·정보 20,448개, 자주하는 질문·답변 17,956개, 전자민원 178개)

□ 아울러 식품안전나라 챗봇 푸디에 '바로가기 기능'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했습니다.

○ 바로가기 기능은 ▲식품안전나라 메뉴·정보 ▲자주하는 질문·답변 ▲전자민원 안내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가 궁금한 정보의 분야를 선택하면 별도의 질문을 입력하지 않아도 관련 정보를 바로 제공합니다.

< 바로가기 기능 구성 >

○ (메뉴·정보) 식품·안전, 위해·예방, 건강·영양, 전문정보, 알림·교육 등 식품안전나라의 메뉴·정보 구성 안내와 메뉴 바로 연결 기능 제공

→ (예시) 바로가기 기능 '메뉴·정보'에 건강·영양을 선택하면 식품영양정보, 나트륨·당류줄이기, 영양 표시정보 등 자동 제공

○ (자주하는 질문·답변) 식품안전나라 회원가입 및 로그인, 품목제조보고, 생산실적보고, 영업등록 신청·변경·폐업, 부정불량식품신고, 이상사례신고 등 12개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질의·답변 제공

→ (예시) 바로가기 기능 '자주하는 질문·답변'의 품목제조보고를 선택하면 품목제조 변경보고 방법, 생산중단보고 방법 등 질의·답변 자동 제공

○ (전자민원 안내) 식품·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등, 축산물, 위생용품, 수출 영문증명, 시험검사기관 등 12개 분야와 관련된 품목제조보고 등 178종의 민원 안내와 민원 신청 페이지 바로 연결 기능 제공

→ (예시) 바로가기 기능 '전자민원 안내'의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면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신청·변

경.폐업,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 등 관련 민원 신청 페이지 바로 연결

- 푸디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초기 화면에서 챗봇 안내 배너 또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고 11월말에는 행정안전부의 챗봇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뵀'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 챗봇 푸디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하고 민원을 신청. 관리하게 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법령.표시.원료 등 전문정보와 공공데이터까지 푸디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 후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챗봇 이용 후 종료 시 만족도 평가와 의견 제출 가능

- <붙임> 1. 식품안전나라 챗봇 '푸디' 접속 화면 및 구성 내용
2. 식품안전나라 챗봇 '푸디' 소개 카드뉴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붙임 1

식품안전나라 챗봇 '푸드' 접속 화면 및 구성 내용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챗봇 '푸드' 배너 및 아이콘 위치

<p style="text-align: center;">챗봇 시작 화면</p> <p>안녕하세요? 식품안전나라 챗봇 '푸드'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간단히 입력하시거나 아래 메뉴를 선택하시면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릴게요.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은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 문의: 1899-5590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p> <p>메뉴-정보 자주하는 질문 답변 전자민원 안내</p> <p>질문 표시: 질문을 입력해 주세요 (질문에서 광고)</p>	<p style="text-align: center;">[바로가기 기능] 메뉴-정보 구성</p> <p>메뉴-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안전 위해·예방 건강·영양 전문정보 알림·교육 <p>메뉴-정보 자주하는 질문 답변 전자민원 안내</p> <p>질문 표시: 질문을 입력해 주세요 (질문에서 광고)</p>
<p style="text-align: center;">[바로가기 기능] 자주하는 질문 답변</p> <p>자주하는 질문 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가입 및 로그인 품목제조보고 생산실적보고 축산물 냉동전환 영업등록 신청 영업등록 변경/해업 전자민원 관련 FAQ 자율점검보고서 배대원 지도점검보고 수입식품 정보공개 부작용관리식품 신고 이상사례신고 <p>메뉴-정보 자주하는 질문 답변 전자민원 안내</p> <p>질문 표시: 질문을 입력해 주세요 (질문에서 광고)</p>	<p style="text-align: center;">[바로가기 기능] 전자민원 안내</p> <p>전자민원 안내 전체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식품첨가물 주류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등 축산물 위생용품 수출 영문증명 시업검사기관 한시적 기준규격 잔류허용기준 유전자변형 어린이 기호식품 <p>검색어 또는 '수입식품', '품목제조보고' 등 키워드로 검색해보세요.</p> <p>메뉴-정보 자주하는 질문 답변 전자민원 안내</p> <p>질문 표시: 질문을 입력해 주세요 (질문에서 광고)</p>

붙임 2

식품안전나라 챗봇 '푸드' 소개 카드뉴스

1 식품안전나라 챗봇 '푸드' 소개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식품(Food)과 정보(Information)의 합성어로 24시간 온라인 질의 답변이 가능합니다.

2 '푸드' 온라인 상담 가능내용

식품안전나라 메뉴·정보, 자주하는 질문 답변, 전자민원(178종)에 대해 질의 답변이 가능하며, 특히 챗봇 하단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하면 즉시 답변해 드립니다.

01 메뉴·정보

02 자주하는 질문 답변

03 전자민원 연금

3 '푸드' 이용 꿀팁

- 01** **이용방법 안내**
모든 이용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02** **초기화면으로 이동**
모든 '푸드' 초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03** **글자 크기 조절 기능**
글자 크기를 크게/작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 04** **질문 자동완성 기능**
단체 입력 시 총의되어 있는 여러 개 질문을 보여주며 원하는 질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05** **질문 예시 제공**
질문 예시를 선택하면 질문 방법을 보여줍니다.

4 '푸드' 만족도 평가 및 의견 수렴 기능

식품안전나라 챗봇 종료 시 만족도 및 개선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의 식품안전정보에서 전자민원까지 더 똑똑해진 챗봇 '푸드'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식품안전정보를 한곳에! Food-식품안전나라
국가대표브랜드 공공 부문 4년 연속 대상 수상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6. 대만,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의 적용을 받는 고정배선용 콘센트 외 7개 제품에 대한 법적 검사 요구사항 개정 발표

대만 경제부 표준검사국(BSMI*)은 2022년 9월 13일, 고정배선 및 배전장치에 대한 검사규제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컨트롤 기능을 가진 고정배선용 플러그와 콘센트에 대해 표준검사국은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무선컨트롤, 유선네트워크컨트롤, 타이밍컨트롤, 음성컨트롤, 움직임 감지, 빛 감지, 전기계산기능 등을 법적 검사의 범위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은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진행됩니다.

*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대상제품의 범위

- 고정배선용 플러그와 콘센트 (검사범위: CNS 690에 부합하는 250볼트 미만의 제품)
- 어댑터 (검사범위: CNS 690에 부합하는 250볼트 미만의 제품)
- 코드연장셋 (검사범위: CNS 690에 부합하는 250볼트 미만의 제품)
- 분리가 안되는 코드셋 (검사범위: CNS 690에 부합하는 250볼트 미만의 제품)
- 분리가능한 코드셋 (검사범위: CNS 690에 부합하는 250볼트 미만의 제품)
- 코드셋 (검사범위: CNS 690에 부합하는 250볼트 미만의 제품)
- 케이블드럼 (검사범위: CNS 690에 부합하는 250볼트 미만의 제품)
- 고정배선용 가전스위치 (검사범위: CNS 695에 부합하는 300볼트 미만의 제품)

새로운 검사기준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며 위 8개 제품은 대만 RoHS 규제에 해당하므로 관련 유해물질인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 크롬(Cr+6), 폴리브롬화 바이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가 부록 A의 CNS에 명시된 기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마크에 RoHS(XX, XX)와 같은 형태로 표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smi.gov.tw/wSite/lp?ctNode=9760&CtUnit=4123&BaseDSD=7&mp=2>

c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http://www.compass.or.kr))

7.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에너지 라벨링 규칙 개정

2022년 10월 3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의 예상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보다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에너지 라벨링 규칙을 개정하여 연방 관보에 공고하였습니다.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에 따라 1979년 발행된 FTC 라벨링 규칙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주요 가전 제품 및 기타 소비자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여 소비자가 경쟁 모델의 에너지 사용량과 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벨은 대부분의 적용 대상 제품에 대해 다음 세 가

지 주요 공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연간 예상 운영 비용
2. 모든 유사 제품에 대한 최고 및 최저 에너지 소비량 또는 효율성을 나타내는 “비교 범위”
3. 제품의 에너지 소비량 또는 에너지 효율 등급

2022년 5월, FTC는 5년 마다 라벨을 개정해야 하는 법에 따라 개정된 규칙을 제안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냉장고 및 냉동고, 식기 세척기, 온수기, 실내 에어컨(범위만), 세탁기, 용광로, 텔레비전 및 수영장 히터에 대한 비교 범위 및 관련 에너지 비용을 수정합니다. 또한, 제305.10조를 업데이트하여 제조업체가 현재 DOE* 요건을 사용하여 실내 에어컨 용량을 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Department of Energy, 에너지부

2023년 10월 1일에 발효되는 실내 에어컨에 관한 개정 지침(부속서 E1 및 부속서 L)을 제외한 본 개정안은 2023년 1월 10일에 발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2/TBT/USA/final_measure/22_6929_00_e.pdf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8. 싱가포르, 로테르담 및 스톡홀름 협약에 따른 특정 화학 물질의 제조, 수출입 제재 통보

2022년 9월 23일, 싱가포르 국가환경청(The National Environment Agency, NEA)은 로테르담 및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특정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출입에 관하여 통지하였습니다.

싱가포르는 현재 환경보호및 관리법* 및 환경 보호 및 관리(유해화학물질) 규정**에 따라 다음 3가지 화학 물질을 유해 화학물질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 (i) Deca-brominated diphenyl ether/Decabromodiphenyl ether (decaBDE)
- (ii) Pentadecafluorooctanoic acid (PFOA),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
- (iii) Perfluorohexane sulfonic acid (PFHxS), 그 염 및 PFHxS 관련 화합물

*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EPMA)

**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Hazardous Substances) Regulations (EPM(HS) Regs)

DecaBDE와 PFOA, 그 염 및 PFOA는 현재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A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스톡홀름 협약의 당사자로서 스톡홀름 협약에 허용된 특정한 용도를 제외한 decaBDE와 PFOA,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의 수출입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22일부터 DecaBDE와 PFOA,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은 로테르담 협약의 부속서 III에도 채택되어 발효됩니다. 스톡홀름 협약에서 허용하는 특정 용도를 위한 동 화학물질의 수출입은 로테르담 협약의 사전 통지 승인(PIC*) 절차를 따릅니다. 따라서 동 화학물질과 해당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화학물질 통제 관리 부서(Cheical Control and Management Department, CCMD)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수출 계획에 대하여 CCMD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Prior Informed Consent

PFHxS, 그 소금 및 PFHxS 관련 화합물은 스톡홀름 협약의 부속서 A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2023년 6월 17일부터, 싱가포르에서는 PFHxS, 그 소금 및 PFHxS 관련 화합물 및 해당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 수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6월 17일 이전에 수입된 화학 물질 및/또는 제품의 기존 재고를 보유한 기업은 현지에서 재고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ag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listing-of-chemicals-under-the-stockholm-and-rdtdam-conventions_23sep2022.pdf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9. 브라질 면역물품 시장

- 브라질에서 가장 큰 20개 제약회사 중 17개가 국내기업
- Dengi, 황열 등 풍토병 상존으로 면역물품의 꾸준한 수요 기대

상품명/HS Code

: 면역물품 /HS Code 3002.15

시장 규모

2022년 브라질 면역물품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에는 약 10%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컨설팅 회사 IQVIA는 면역물품 시장(소매 및 정부구매 포함)이 매출액 기준으로 올해 12.5%, 내년에는 10.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사는 “일부 국가에 한정되기는 하겠지만 면역물품 시장은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면역물품 소매 판매는 올해 11.8%, 내년 9.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구매는 코로나19 백신을 제외한 정부의 면역물품 구매는 올해 13.5%, 내년 11.4%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IQVIA에 따르면 정부 구매는 통합공공보건시스템(SUS) 예산 축소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 클리닉과 병원에 대한 판매는 4월까지 5.2% 증가했으며, 내년에는 1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건강 제품(Consumer Health)의 소매 판매 동향(2019-2022)>
(단위: 100만 헤알)

Historical

Geography	Category	Data Type	Unit	Current Constant	2019	2020	2021	2022
Brazil	Consumer Health	Retail Value RSP	BRL million	rent Prices	32.119,8	34.279,5	38.562,7	42.336,0
Brazil	OTC	Retail Value RSP	BRL million	Current Prices	20.734,8	20.926,0	22.991,5	25.537,8
Brazil	Sports Nutrition	Retail Value RSP	BRL million	Current Prices	2.582,8	2.264,9	2.883,9	3.478,7
Brazil	Vitamins and Dietary Supplements	Retail Value RSP	BRL million	Current Prices	7.106,7	9.396,0	10.978,7	11.550,9
Brazil	Weight Management and Wellbeing	Retail Value RSP	BRL million	Current Prices	1.695,5	1.692,6	1.708,5	1.768,6
Brazil	Herbal/Traditional Products	Retail Value RSP	BRL million	Current Prices	3.447,3	3.847,2	4.191,5	4.561,1
Brazil	Allergy Care	Retail Value RSP	BRL million	Current Prices	585,2	574,7	640,7	718,0
Brazil	Paediatric Consumer Health	Retail Value RSP	BRL million	Current Prices	1.700,6	1.759,3	1.862,4	2.033,3

Research Sources:

1. Consumer Health: Euromonitor from trade sources/national statistics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브라질 건강 제품(Consumer Health)의 성장률 변화 (2017-2022)>
(단위: 100만 헤알)

Historical | Year-on-year growth (%)

Geography	Category	Data Type	Unit	Current Constant	2017 - 2018	2018 - 2019	2019 - 2020	2020 - 2021	2021 - 2022
Brazil	Consumer Health	Retail Value RSP	BRL million	Current Prices	6,5	6,2	6,7	12,5	9,8
Brazil	OTC	Retail Value RSP	BRL million	Current Prices	6,9	5,6	0,9	9,9	11,1
Brazil	Sports Nutrition	Retail Value RSP	BRL million	Current Prices	12,7	10,6	-12,3	27,3	20,6
Brazil	Vitamins and Dietary Supplements	Retail Value RSP	BRL million	Current Prices	6,7	8,2	32,2	16,8	5,2
Brazil	Weight Management and Wellbeing	Retail Value RSP	BRL million	Current Prices	-5,7	-0,9	-0,2	0,9	3,5
Brazil	Herbal/Traditional Products	Retail Value RSP	BRL million	Current Prices	2,2	2,8	11,6	8,9	8,8
Brazil	Allergy Care	Retail Value RSP	BRL million	Current Prices	7,4	6,7	-1,8	11,5	12,1
Brazil	Paediatric Consumer Health	Retail Value RSP	BRL million	Current Prices	2,9	4,5	3,5	5,9	9,2

Research Sources:

1. Consumer Health: Euromonitor from trade sources/national statistics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시장 동향

(면역력)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브라질 국민 사이의 가장 주목 받는 행태 변화 가운데 하나로, 증상 치료보다 예방을 중시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비타민, 특히 비타민 C와 D의 판매를 지속해서 증가시켰다. 해당 비타민 제품은 명백한 면역력 증가 효과를 나타냈으며 2022년에도 빠른 속도로 판매가 늘었다.

제조사의 혁신 전략으로 새로운 형태와 맛을 가진 비타민이 등장했다. 자가치료 과정을 더 즐겁게 하고 알약 소비를 줄였다. 비타볼(Vittaball)이 대표적인 예다. 이 브라질 기업은 거품 형태의 발포성 비타민에 투자하고 인공색소가 없는 천연 추출물과 채식주의자가 섭취할 수 있는 처방도 제시했다.

브라질의 주요 비타민 브랜드인 Centrum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될 때부터 젤리 형태의 제품 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이 전략은 주로 미용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에서 확산했다. 최근 네슬레 헬스 사이언스(Nestlé Health Science)가 인수한 브랜드 푸라비다(Puravida)는 경구 영양 보충제, 단백질 분말, 즉시 마실 수 있는 영양 음료 등을 포트폴리오로 제공하고 있다. 비타민과 건강보조식품을 소비하면서 얻는 편리함과 즐거움이 브라질의 소비 경향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정신 건강) 2022년에 브라질 국민은 면역력 외에 정신 건강에도 관심을 두게 됐다. 보건부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국민의 11%가 2021년 9월에서 2022년 3월 사이에 의학적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보고됐다. 이 문제에 대한 우려로 브라질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충격을 다루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원격 의료 상담 등과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프로바이오틱스)면역력과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브라질에서 프로바이오틱스의 인기가 올라갔다. 장이 "제2의 뇌"이며 면역력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뉴스 보도의 증가로 사람들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제품을 찾았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SKU(Stock Keeping Units)를 추적하는 Euromonitor에 따르면 2022년 브라질에서 "프로바이오틱" 성분 함유 제품 소비가 두 자릿수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는 가격이다. 국내 소매업체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브

라질 국민의 구매력 감소와 재정적 취약성으로 인해 2022년에 프로바이오틱스 기반 제품 소비는 여전히 소수에 제한됐다.

분사, 인수 합병이 브라질 제약 업체 경쟁 구도의 특징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시장 성장에 맞춰 '전략적인 전문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팬데믹에 따른 환경 변화로 면역력 강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건강 관리, 예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GlaxoSmithKline 및 Johnson&Johnson과 같은 시장을 주도하는 국제 제약회사들은 치료에 최대한 주력하고 혁신을 통해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 소비자 건강 비즈니스를 기존의 제약 제품에서 전략적으로 분리하고 있다.

노바티스(Novartis)는 2022년에 제네릭 약품 생산 부문인 산도즈를 해체하고 2023년 중반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마진 의약품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사노피는 팬데믹 기간 동안 브라질에서 OTC 의약품 생산을 줄이고 비타민에 노력을 기울였다.

화이자(Pfizer)는 제네릭 생산 부문(업존, Upjohn)을 분사하고 마일란(Mylan)과 합병했으며 새로운 회사인 비아트리스(Viatris)를 설립했다. 비아트리스는 2021년 6월 브라질에 진출해 바이오시밀러 약품에 집중하고 있다.

약국 발전은 계속되지만 새로운 유통경로 진입에 따른 압박 가중

약국 소매 판매의 성장 속도는 브라질의 GDP 성장 속도보다 빠르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거시 경제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의약품과 같은 필수 제품은 시장 평균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크고 작은 약국 체인 확대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브라질에서 의약품을 상업화하도록 승인된 유일한 시설이며, 팬데믹이 시작될 때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허용된 몇 안 되는 시설 중 하나였다. 그 결과 약국이 의약품을 넘어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 신제품 카테고리 확대되면서 유통채널로서의 약국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브라질에는 약 9만개의 약국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작년에 8천개 이상의 새 매장이 문을 열었다. 이 수치는 매우 높아 보이지만, 브라질 인구가 2억1천500만 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인구 2천400명당 약 1개의 약국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전히 성장의 여지가 있으며 주요 플레이어들은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도시의 크기에 따라 각각 다른 유형의 경쟁에 직면해 있다. 브라질의 대도시는 새로운 상점을 열어 점유율을 놓고 경쟁하는 대형 약국 체인에 의존하는 반면, 소규모 도시는 규모의 경제 없이 운영되고 고객과의 접근성이 좋은 상점을 통한 지역 비즈니스에 의존한다. 브라질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소비자 건강제품 소매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와 같은 대도시를 겨냥한 전략과 인구 밀도와 소득 수준을 고려한 소도시 공략 전략이다.

수입동향

<2019~2021년HS Code 3002.15 기준 브라질 수입현황>

국가	HS CODE	2021 - FOB Amount (US\$)	2021 - Net Kilogram	2020 -FOB Amount (US\$)	2020 - Net Kilogram	2019 - FOB Amount (US\$)	2019 - Net Kilogram
스위스	300215	361.400.201,00	23.488,00	369.301.434,00	25.983,00	364.075.560,00	6.859,00
독일	300215	336.455.327,00	92.058,00	345.874.151,00	70.699,00	472.771.394,00	74.171,00
아일랜드	300215	228.658.382,00	51.384,00	244.806.088,00	43.123,00	192.841.120,00	37.074,00

미국	300215	124.967.985,00	102.110,00	136.717.112,00	92.244,00	165.142.184,00	48.022,00
푸에르토리코	300215	116.453.381,00	55.318,00	122.982.227,00	67.073,00	100.777.193,00	48.807,00
이탈리아	300215	111.546.153,00	25.538,00	62.998.360,00	25.657,00	35.289.101,00	23.740,00
한국	300215	100.007.979,00	555.356,00	32.261.032,00	91.835,00	8.340.445,00	2.426,00
덴마크	300215	54.021.534,00	3.475,00	74.576.232,00	7.075,00	100.618.522,00	9.361,00
벨기에	300215	36.795.437,00	9.808,00	35.801.760,00	11.973,00	66.585.460,00	36.738,00
일본	300215	35.006.640,00	5.116,00	31.064.162,00	3.943,00	30.717.631,00	3.634,00

[자료: ComexStat]

보건 분야를 위한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수입은 브라질 제약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브라질은 현재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제약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12월 까지 브라질은 5만2천463.38톤의 의약품을 수입해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전국 의약품 소매는 최근 12개월 동안 12% 증가했다.

의약품에 대한 국내 수요 증가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대중 약국"(Farmácia Popular)과 같은 정부 프로그램은 브라질의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약품 수입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통계 사이트 ComexStat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브라질은 의약품 43억 달러어치를 수입해 전체 수입에서 10위를 차지했다. 2020년 1~5월까지 19억5천만 달러를 수입, 금액 기준으로 주요 수입제품 순위에서 의약품은 7위를 차지했다.

관세율 및 인증

○ 관세율

<HS Code 3002.15 관세 및 부가세>

HS Code	관세율 (II)	공업세 (IPI)	사회기여세 (PIS/PASEP)	사회보장세 (COFINS)	유통세* (ICMS)
3002.12	0~6.4	0	0	0	18

*상파울루 주내 이동 시에 18%가 적용됨.

[자료: Tecwin]

○ 인증

면역물품의 수입 유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ANVISA(국가위생감시국)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경쟁동향

판매량 기준 브라질의 20대 제약회사 가운데 17개가 국내제조업체다. 2020년 5월까지 최근 12개월을 고려할 때 상위 8위까지 모두 브라질 기업이 차지했다.

Neo Quimica는 생산 제품 4억6천360만개와 전년동기대비 15.35%의 성장률로 국내 제약 회사 중 선두를

차지했다. 2위 업체 Cimed는 7.53% 증가에 그쳤으며 EMS, Eurofarma 및 Aché가 각각 3~5위를 차지했다. União Química는 2계단 상승했고, Natulab은 42% 이상 증가하면서 20대 제약회사 순위에서 진입했다. 다국적 기업 중 Sanofi는 1계단 하락해 9위에 머물렀고, Merck (11위)와 Sandoz (18위)도 1단계씩 내려갔다. * 20대 제약회사 19위에 오른 MedQuímica는 인도 Lupin 그룹에 속하지만 브라질 기업으로 간주한다.

<브라질 상위 20위 제약 업체 (2020년 판매량 기준)>
(단위: 100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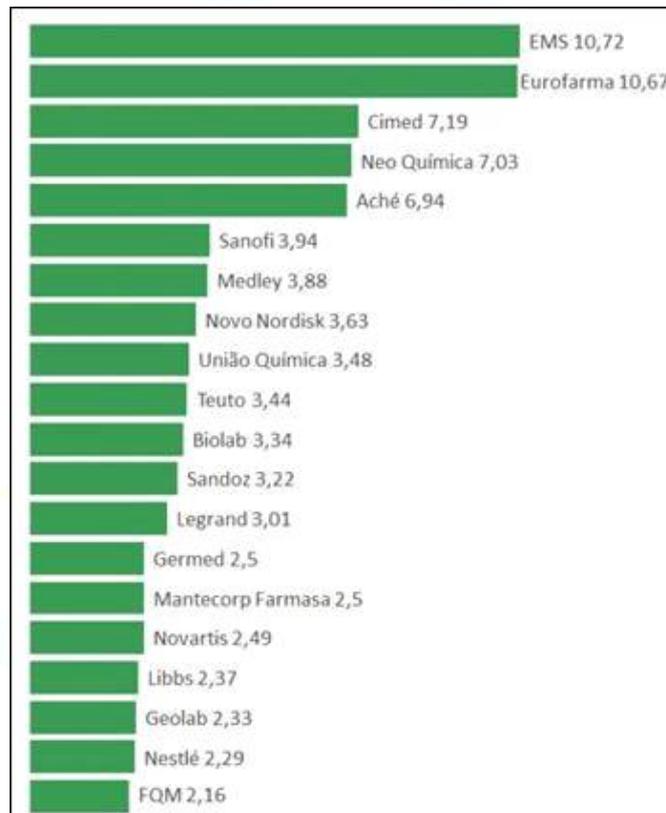
상위	기업	판매 수량 (백만)	증가율 %
1	Neo Química	463.6	15.35
2	Cimed	389.6	7.53
3	EMS	356.2	-0.69
4	Eurofarma	238.2	4.05
5	Aché	216	14.66
6	Teuto	214.3	17
7	União Química	186.1	7.61
8	Medley	174.7	1.55
9	Sanofi	157	5.4
10	Geolab	120.9	19.56
11	Merck	120.4	11.6
12	Legrand	105.5	3.69
13	Natulab	99.8	42.98
14	Germed	94.2	17.16
15	Prati-Donaduzzi	93	6.44
16	Biolab	81.2	12.02
17	Hypera CH	77.8	11.03
18	Sandoz	68.1	-9.93
19	MedQuímica	64.4	1.97
20	Mantecorp Farmasa	61.4	11.23

[자료: IQVIA]

○ 브라질 주요 제약회사(매출액 기준)

매출액 기준 20대 기업 순위에는 15개의 순수 브라질 기업이 포함됐으며, 5개의 다국적 기업 또는 외국 그룹에 속한 제약회사가 있다. EMS와 Eurofarma는 각각 107억2천만 달러와 106억7천만 달러로 1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순위가 가장 높은 외국 기업은 39억4천만 헤알로 6위인 Sanofi와 Novo Nordisk(36억3천만 헤알)다.

<브라질 상위20위 의약품 (2020년 매출액 기준)>
(단위: 10억 헤알)



[자료: IQVIA]

유통구조

면역물품의 경우, 일반 판매 및 공동 조달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시사점

‘Fórum Expectativas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브라질의 면역물품 시장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분야 기업들은 내년에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중 약 57%는 브라질의 고용 회복과 경제성장에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목 받는 행태 변화 가운데 하나로, 질병의 치료보다 예방을 중시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비타민 C와 D 등 비타민 제품의 판매를 증가시켰다. 면역력 증가 효과를 가진 비타민 제품은 2022년 빠른 속도로 판매가 늘었다.

브라질은 Dengue, 황열, 치쿤구니아, 말라리아 등 다양한 풍토병이 상존하고 있어 면역물품의 꾸준한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브라질 면역물품 시장에 대한 관심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료: Euromonitor, IQIA, ANVISA,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0. 파키스탄 스테인리스 강판 산업 동향

- 중공업 산업 발전에 따라 높은 수요 당분간 이어질 전망

파키스탄 철강 산업 개요

파키스탄은 천연가스, 석탄, 원유 등 자원 보유국이며 특히 석고, 석회암, 크로마이트, 철광석, 암염, 은, 보석, 보석, 유황, 내화 점토 및 실리카 등 다양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서부 발루치스탄 지역에는 스테인리스강 원료인 크롬철석 광상 벨트가 있으며 북부 KPK(Khyber Pakhtunkhwa) 주에 매장된 광상은 250만 톤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막대한 매장량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가공시설과 설비 부족으로 생산활동은 이뤄지지 못한다. 크로마이트의 생산은 거의 원시적 형태로 이뤄져 중국에 수출된다. 페로크롬은 주로 스테인리스강 제조에 사용되는 철과 크롬으로 구성된 합금인데 이 분야에서 크롬 생산을 위한 개량된 공법과 최신식 설비투자가 시급히 요구된다. 파키스탄의 철강 산업은 대부분 구식 기술을 활용하는 소규모 공장형태의 모습을 띤다. 특히 대부분의 용융, 재압연, 가공업체는 경쟁업체에 비해 공장 규모가 작다. 구식 및 에너지 비효율적인 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생산 비용이 높고 품질 저하와 제품 비균질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현지 생산 제품은 규모의 경제 이점을 누릴 수 없을 뿐더러 자유 무역 협정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중국의 저렴한 수입품과 경쟁대상이 되지 못한다.

생산 및 수요

파키스탄 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파키스탄 철강 현지 생산은 증가하는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2016-17년의 현지 생산은 770만 톤(MT)인데 반해 수요는 1,200만 톤으로 초과수요가 430만 톤이나 발생했다. 지난 5년 간 생산과 수요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2016-17년에는 수요의 36%가 충족되지 못했는데 2019-20년에는 초과수요가 40%로 증가했다. 생산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1% 증가한 반면 수요는 2% 증가했다. 그 격차를 줄이려면 생산량이 수요의 두 배로 증가해야 하는데 2020-21년에 총 생산량은 8백만톤인 반면 수요는 연간 13.4백만톤에 육박했다. 2017-18년 전년 대비 생산 증가율은 22%였던 반면 수요 증가율은 28%에 달했고, 2018-19년에는 생산이 13%로 감소했고 수요는 17%로 감소했다. 2020-21년에는 수요가 19% 증가한 것에 비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앞으로 생산과 수요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파키스탄 철강 생산과 수요 변화율 추이>
(단위: %)



[자료원 : 파키스탄 상공회의소]

스테인리스강의 활용

스테인레스강 산업은 건설, 생활 용품, 가전 산업, 기계 산업 및 자동차 등 전 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자재이다.

건축 산업

스테인레스 스틸은 매우 중요한 건축 자재로 프레임의 높은 인성과 높은 강도로 인해 신축성이 좋으며 특히 고품질 스테인레스 스틸 구조는 큰 하중을 견딜 수 있고 먼 거리에 걸쳐있을 수 있다. 크롬을 첨가하여 내식성이 우수하고 이 물질과의 접촉을 차단한다.

일반 상품

내식성 및 내열성이 우수하여 가스 레인지, 난방 장비, 배관 및 물 저장 탱크, 캐비닛 제품, 식품기구 및 기타 생활 필수품의 제조에 널리 활용된다.

가전산업

가전 제품에는 스테인리스 강과 코일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에어컨, TV, 냉장고 및 세탁기에 스테인리스 강이 사용되는 대표적 제품이다. 냉장고 문은 자성을 가진 재료가 필요하며 미적인 외관이 필요하다. 재료는 대부분 0.6mm에서 0.8mm의 430개의 냉간 압연된 스테인리스 강판입니다. 소형 가전제품인 전자레인지, 온도기, 밥솥, 식기세척기도 모두 스테인리스 강이 사용된다.

기계 산업

기계 산업에서 스테인레스 강은 주로 운송 장비, 산소 생산 장비 및 발전 장비, 식품 및 제약 기계 장비 산업에 사용된다.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의 주요 소비재인 운송장비로는 판두께가 0.4~3.0mm이며 304, 310S, 316/316L 등 300계열을 사용하여 기차, 선박배관, 주방, 화장실 등에 사용 된다. 산소 생성 산소 전송 장비 및 발전 장비의 경우 사용자의 주요 수요는 산소, 산소 및 발전 장비 파이프 라인에 사용되는 이음매없는 강판이다.. 주로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에는 HR3C, 310SNBN, Super 304, 347H 등이 있다. 식품 및 제약 기계 및 장비 산업의 경우 사용자는 주로 304, 316, 316L 및 321과 같은 스테인레스 스틸 이음매없는 파이프 및 펌웨어가 필요하며 주로 다양한 캔에 사용되는 원형 강, 플레이트, 프로파일 등이 필요하다.. 식품 및 제약 산업을 위한 주전자, 파이프, 샤프트 및 샤프트의 경우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0.4~1.5mm이다.

자동차 산업

스테인레스 강은 자동차 배기 시스템, 자동차 연료 탱크, 자동차 프레임,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 트림에 주로 사용된다. 자동차 연료탱크용 스테인리스강은 주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들어진다. 우수한 프레스 성형성, 용접성 및 높은 내식성이 요구된다. SUS304L과 같은 300 시리즈 스테인리스 강이 사용된다. 자동차 프레임용 스테인리스 스틸은 페라이트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일체형 차체 셸과 같은 자동차용 고강도 스테인리스 강판이며 수명은 일반적으로 15-20년이다. 자동차 부품에도 또한 스테인레스 강이 많이 사용되며 자동차 엔진 시스템 및 트랜스미션 시스템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파스너 소재로 SUS410을 사용한다.

스테인리스강 수입동향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스테인리스강제의 평판 압연 제품 기준(HS코드 7219.90) 현지 수입시장 제품 점유율은 중국이 1위이며 뒤를 이어 미국, 한국이 2위 및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스테인레스 제품(7219.90) 현지 시장 수입점유율>
(단위: %)

순위	국가	수입액 US\$	수입액 US\$	시장점유율	성장율 %
		(2019-2020)	(2020-2021)	(2020-2021)	(2020-2021)
1	중국	29,363,665	30,100,345	53.33	2.51
2	미국	8,099,467	9,443,794	16.73	16.6
3	한국	6,354,044	9,145,513	16.2	43.93
4	멕시코	2,019,741	2,493,620	4.42	23.46
5	일본	1,093,991	1,430,916	2.53	30.8
6	말레이시아	1,548,916	1,189,250	2.11	-23.22
7	대만	1,323,802	898,662	1.59	-32.12
8	이태리	163,293	360,067	0.64	120.5
9	네덜란드	274,281	172,620	0.31	-37.06
10	벨기에	137,691	170,381	0.3	23.74
11	기타	1,819,475	1,041,573	1.85	-42.75
	총계	52,198,366	56,446,741	100%	8.14

[자료원 : 파키스탄 통계청]

관세

관세와 상계관세는 없으며 17%의 판매세와 6%의 수입세만 부과된다.

<평판 압연 관부가세 >

HS 코드	관세	판매세	수입세
7219.90	0	17	6

[FBR-연방 국세청 - 파키스탄 정부]

인증

수입 시 파키스탄 표준 및 품질 관리 기관(PSQCA)의 적합성 평가 결과 인증서가 필수적이다.

유통구조

파키스탄의 제조 회사는 외국 공급업체 또는 무역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한다. 유통업자는 수입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고 제조 요구 사항에 따라 제품을 공급한다. 에이전트는 현지 제조업체와 해외 공급업체 간 수수료를 받고 중계 역할도 수행한다.

카라치 무역관에서 현지 수입통계를 분석하여 파악한 메이저 유통 수입업체는 다음과 같다.

AR 엔터프라이즈	
연간 매출	천만 달러
연간 수입	250만 달러
주소	Pindi Bypass Near Toll GT Road, Gujranwala, 편자브, 파키스탄
순위	1위, 혼합 품질 스테인리스 수입
비고	주수입국 : 중국 스테인레스 스틸 서클 이차 품질 Aisi200 시리즈 비 자성 스테인레스 스틸 서클 이차 품질 Aisi201 비 자기 스테인레스 스틸 서클 2차 품질 Aisi410 마그네틱 스테인레스 스틸 서클 2차 품질 Aisi400 시리즈 마그네틱

자밀엔터프라이즈	
연간 매출	천만 달러
연간 수입	170만 달러
주소	Abadi Mir Muzzaffar Bara Gala, Guranwala , 편자브, 파키스탄
순위	2위, 스테인리스 스틸
비고	주수입국 : 한국 스테인레스 스틸 시트 Aisi 200 시리즈 비자성 2 차 품질 스테인리스 강판 Aisi 400 시리즈 마그네틱 2차 품질

A.S ENTERPRISES	
연간 매출	800만 달러
연간 수입	110만 달러
주소	부타 아바디 나우세라 Sansi , Iqra 공립학교 근처 , Gujranwala, Punjab, 파키스탄
순위	3위, 스테인레스 스틸
비고	주수입국 : 한국 스테인리스 강판 코일 이차 품질 Aisi 400 시리즈 마그네틱

SALMAN ENTERPRISES	
연간 매출	600만 달러

연간 수입	100만 달러
주소	23/B Small Industrial Estate No 1 Near Pepsi Cola Factory G.T Road Gujranwala, Punjab, 파키스탄
순위	4 위, 스테인레스 스틸
비고	주수입국 : 중국 스테인리스 원형 코일 Aisi 200 시리즈 비 자성 이차 질 스테인레스 스틸 서클 Aisi 400 시리즈 마그네틱 2차 품질

GH TRADERS	
연간 매출	400만 달러
연간 수입	60만 달러
주소	New Steel Market, GT Road, Near Regent Cinema, Gujranwala, Punjab, 파키스탄
순위	5위, 스테인레스 스틸
비고	주수입국 : 미국 스테인레스 스틸 코일 이차 품질 Aisi300 시리즈 비 자성

시사점

파키스탄의 제조업 부흥과 중국과의 CPEC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로 향후 스테인레스 강판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현지생산이 내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수요도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바이어 연결 및 공장 진출 등 사업지원을 원하면 긴급수출 24, 지사화 사업 등 KOTRA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카라치무역관(khi_ktc@kotra.or.kr)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원 : 파키스탄 통계청, 파키스탄 상공회의소, Global Trade Atlas, 현지 바이어 인터뷰,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1. 우즈베키스탄, 일부 상품 디지털 라벨링 의무화 시행

- 2022년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 중
-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모든 제품에 적용할 예정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불법 수입 및 생산·판매 방지, 합법적인 유통 보장 및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매커니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의무 라벨링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제품의 라벨링 및 추적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정보 제도 Asl belgisi을 도입했으며 CRPT TURON LLC를 본 제도의 운영자로 지정하였다.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협약을 체결하고 경제연합 내에 유통되는 제품에 동일한 디지털 라벨링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역시 러시아로부터 디지털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제품에 디지털 라벨링을 적용할 예정이며 2022년 현재 기

준, 약 5개 품목에 대해 디지털 라벨링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디지털 라벨링 대상 제품군>



[자료: <https://crpt-turon.uz/>]

<우즈베키스탄 내각의 일부 제품에 대한 라벨링 의무화 도입 시행령>

번호	제품	HS CODE	디지털 라벨링 도입 시작 날짜
1	담배	2402.90	2021년 1월 1일부터
2	술, 맥주	2204, 2205, 2206, 2207, 2208, 2203	2021년 4월 1일부터
3	가전제품	7321, 8403, 8414, 8415, 8418, 8422, 8423, 8450, 8508, 8509, 8510, 8516, 8518, 8519, 8521, 8525, 8527, 8528, 8539, 8540	2021년 12월 1일부터
4	의약품 및 의료용품	3003, 3004	2022년 2월 1일부터
5	물 및 청량음료	2009, 2201, 2202	2022년 3월 1일부터 Pilot project : 2021년 6월 1일

주: 1) 2021년 7월 1일부터 식품의 소금, 설탕, 지방(fat) 함량에 관한 라벨링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수입되거나 현지 생산된 식품 모두에 대해서 라벨링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2) 의무 라벨링 도입 시기는 제품의 품목별로 다름.

[자료: <https://lex.uz/docs/5429990>]

디지털 라벨링 도입 목적

다음은 우즈베키스탄의 라벨링 오페레이터인 CRPT TURON의 라벨링 도입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 통합 디지털 라벨링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물류 체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 수익을 늘릴 수 있다.
- 불법 판매 비율을 줄임으로써 합법적 생산자는 제품에 따라 시장 점유율과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 기업은 제품 운송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 수신, 최적의 생산 계획, 재고 감소 및 제품 회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 기업은 물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상품 전반적 추적을 도입하면 제조업체 또는 물류 업체에서 판매 관련 최신 통계 자료를 받으며 물류 계획을 구축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 기업은 생산 및 물류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심층 회계를 설정할 수 있다.
- 전자 문서 관리로 전환되면 업체 간에 교환하는 종이 문서의 양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디지털 라벨링 부여 절차

디지털 라벨링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품 유통 업체는 디지털 라벨링 정보시스템(Asl Belgisi)에 등록한다.
2. 제조사 또는 수입업자가 디지털 코드를 주문하고 부여받은 Data Matrix 코드를 상품에 붙인다. Data Matrix 코드는 상품 코드 및 상품의 개별 일련번호 등을 포함하며 코드를 붙이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상품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입하는 경우, 라벨링은 우즈베키스탄 국경을 넘기 전(수송 시 또는 공장에서)이나 통관 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Data Matrix 코드는 다른 정보로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2020년 12월 31일 발표된 내각 시행령 제833호로 승인된 라벨링 코드 수령 비용은 68 UZS(VAT 제외)이다.
3. 디지털 코드에 따라 상품의 모든 이동 과정을 포함한 전체 logistics chain이 추적된다.
4. 코드는 온라인 결제 시 스캔되며 판매된 상품에 대한 데이터는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5. 소비자는 상품의 디지털 라벨링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상품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라벨링이 부착된 제품>



[자료: <https://crpt-turon.uz/>]

시사점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옵서버로 활동 중이며 정회원국 가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러시아로부터 디지털 라벨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추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가입했을 때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경제 연합 회원국 내에서 동일한 라벨이 통용된다면 회원국들 내에서의 교역에 있어 이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라벨링 제도는 운송 및 유통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제품의 품질을 보증해주는 제도로 소비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이긴 하나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따라서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라벨링이 필요한 품목을 수출 시에는 준비기간을 넉넉히 잡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으며, 관련 서류 등도 CRPT TURON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정확히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 라벨링 코드 수령을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역시 수출 시 고려해야하는 부분이다.

디지털 라벨링 문의처(ASL BELGISI)

- 홈페이지 : <https://crpt-turon.uz/>
- 이메일 : support@crpt.uz
- 전화번호 : +998 71 203 8872

자료: <https://crpt-turon.uz/>, lex.uz, 기타 현지 언론보도 등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수집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2. 라오스 주방후드 시장 동향

- 주택문화 현대화, 주거단지 조성 호조로 주방후드 수요 지속
- 외국인 및 구매력 높은 현지 End-User 특성 상 가격 외 요소가 중요

상품명 및 HS Code : 주방후드 (HS Code : 841460)

시장동향

코로나19 이전까지 고성장세를 이어온 라오스의 주거시설은 아직 전근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파트 또는 서양 스타일의 주택보다는 라오스 전통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라오스인이 대다수이다. 특히 라오스 인들은 여전히 목탄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주택시설에는 연기가 집 밖으로 상시 빠져나가도록 부역의 창에 유리를 설치하지 않는다.

<라오스 주방 조리시설>



[자료: SWITCH-Asia]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인들 사이에서는 점차 현대적인 주거스타일 보급 추세가 감지되고 있다. Euromonitor에 따르면, 2021년 라오스 전체 가정 중 현대적인 주방 레인지를 갖춘 가정의 비율은 58.4%이다. 또한 주요 도시인 비엔티안 시, 사바나켓, 팍세에서의 보급률은 이보다 높은 62.7%, 62.1%, 64.7%로 각각 추산하였다. Euromonitor는 주방 레인지 보급률이 2030년에는 63.9%, 2040년에는 69.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실내 주방 형태의 주택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매운 맛 등 자극적인 향이 많은 라오스 음식 특성 상 실내 주방 환기의 필요성이 점차 인식되면서 신축 주택 등에는 주방후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라오스 가정 주방 레인지 보급률 추이>
(단위: %)

연도	비엔티안	사바나켓	팍세	라오스 전체
2016년	58.9	58.4	60.9	54.7
2021년	62.7	62.1	64.7	58.4
2025년	65.3	64.8	67.5	61.0
2030년	68.4	67.9	70.6	63.9
2035년	71.2	70.7	73.5	66.7
2040년	73.6	73.1	76.0	69.1

주: 2025년~2040년 수치는 전망치

[자료: Euromonitor]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주방기기 수입유통 업체들은 현재 라오스 내 주방후드의 가장 큰 수요층을 외국인 주거시설로 꼽는다. 비엔티안을 중심으로 외국인을 타겟으로 한 레지던스 건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중국 자본으로 아파트 단지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스타벅스 개장 등에 따라 비엔티안 핵심 상권으로 자리잡은 Parkson 일대에는 아파트 건설 2개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으며, 탕루앙 경제특구에서는 아파트 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비엔티안 시내 주방후드가 꾸준히 라오스로 수입되고 있다.

<비엔티안 시내에 건설중인 아파트 단지>



[자료: Future Southeast Asia]

수입동향

라오스는 제조업 기반이 약해 주방후드 제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시장데이터가 부재한 라오스의 주방후드 시장규모는 수입액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설기술자 입출국 및 자재 수입에 애로를 겪은 2020년을 제외한 2017년~2021년 라오스의 연평균 주방후드 수입액은 약 434만 달러이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국계 아파트 조성 붐과 연관이 있다고 수입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2017~2021년 라오스 주방후드 수입통계(HS코드 841460)>
(단위: US\$ 천)

국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중국	1,231	1,328	3,492	703	3,071
베트남	51	163	37	58	717
태국	1,073	1,616	1,360	367	256
호주	3	-	169	158	94
기타	2,429	3	131	127	154
합계	4,787	3,110	5,189	1,413	4,292

[자료: ITC Trademap]

경쟁동향

현지 주방후드 시장에는 6개 브랜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산의 경우 대체로 아파트 공급 프로젝트에 공급되고 있으며, 이외에 태국, 스위스, 독일, 싱가포르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라오스 유통 주방후드 제품>

제품정보		비고
	EVE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흡입력 : 1,600m³/h 순중량 : 25.3kg 규격 : 95×57×18cm 소매가 : US\$299 Souvanny Home Center (태국 수입)
	Franke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흡입력 : 700m³/h 순중량 : 21.7kg 규격 : 90×60×18cm 소매가 : US\$284 Souvanny Home Center (태국 수입)

	Hafele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입력 : 1,400m³/h • 순중량 : 21.2kg • 규격 : 94×55×18cm • 소매가 : US\$ 412 	Souvanny Home Center (태국 수입)
	Techno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입력 : 1,200m³/h • 순중량 : 22kg • 규격 : 96×40×57cm • 소매가 : US\$ 289 	Santiparb (싱가포르 수입)
	Teka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입력 : 1,000m³/h • 순중량 : 17kg • 규격 : 90×45×50cm • 소매가 : US\$ 268 	Santiparb (태국 수입)
	Robam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입력 : 1,020m³/h • 순중량 : 22kg • 규격 : 89×48×55cm • 소매가 : US\$ 295 	Tangcharoen Home Store (중국 수입)

(주: 환율 US\$ 1=LAK 16950 기준 환산)

[자료: KOTRA 비엔티안무역관 자체조사]

유통채널

현지 수입유통업체 관계자는 주방후드가 주거단지 프로젝트에 단지 단위로 공급이 되거나 소매 매장을 통해 주택 오너 및 주택 건설업체에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거단지 프로젝트 납품비중이 70%이며, 나머지는 소매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관세율 및 인증

HS코드 841460 기준 라오스의 기본 수입관세율은 5%이며, 한-ASEAN FTA 및 ASEAN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ASEAN 상품무역협정 적용 시 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각 협정별로 특혜 수입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증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관계로 제품이 원산지증명 발급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2년 11월 현재 라오스에서는 가전용 전기/전자장비 수입유통을 하고자 할 경우 규정에 따라 (Decision on the safety managemen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No. 1573/DSM.MOST, dated 27 November 2020) 품질검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해외 실험인증을 받은 경우 검사증명

서를 제출 시 통과가 가능하며, 제품에는 라오스어로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시사점

라오스의 주방후드는 대부분 주거단지 프로젝트로 납품되나, 프로젝트 대부분이 중국 자본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중국산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 기업이 라오스 주거단지 프로젝트 수요를 타겟으로 하기에는 장벽이 있을 것으로 현지 수입유통사들은 보고 있다.

대신 이들은 선진국 시장 진출이력을 발판으로 삼을 것을 조언한다. 라오스 내 중소형 레지던스 및 현대식 주택을 건설하려는 오너들은 프랑스 등 오랜 해외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제품을 선택할 시 가격 외의 요소를 더 중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라오스인에게 친숙한 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의 판매 레퍼런스가 있을 시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았다.

중간상 및 최종소비자에 대한 홍보채널이 많지 않은 라오스 특성 상 전시회 참가는 인지도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Lao Top 3 Expo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Lao Build 전시회는 라오스 내 건축 분야 관계자가 많이 모이는 흔치 않은 행사로, 전시규모는 작지만 라오스 시장을 모색하는 경우 참가를 고려해볼 만하다.

자료: Euromonitor, ITC Trademap, 라오스 산업통상부, SWITCH-Asia, Future of Southeast Asia, KOTRA 비엔티안무역관 인터뷰 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